

HOME > 로컬뉴스

보건소에서 엄마랑 놀자

서울경기케이블TV 진기훈 기자 | 승인 2017.06.12 23:33

【 앵커멘트 】

성북구에는 조금 특별한
보건지소가 있습니다.
영유아들의 건강관리부터
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놀고,
육아 정보도 나눌수 있는 곳,
바로 정릉아동보건지소입니다.
진기훈 기자가 소개합니다.

【 현장음 】

음악에 맞춰 춤추는 모습

【 VCR 】

신나는 음악에 맞춰 엄마들이
아이를 안고 춤을 춥니다.

엄마 품에 안긴 아이들은
평온한 표정입니다.

아기띠 라인댄스를 통해 엄마들은
운동도 하고, 아이와 더욱 가까워 집니다.

【 인터뷰 】

손유리 서울시 솔샘로

아기랑 떼놓고 운동하기가 힘든데 같이 안고 하니까
안심도 되고, 아기도 더 좋아하는 것 같구요.
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

【 VCR 】

올해 3월 개장한 정릉아동보건지소는
전국에 유일한 아동 전용 보건지소입니다.

영유아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은 물론
임산부와 엄마들의
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.

다양한 육아정보를 나누는
엄마들의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됐습니다.

아이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과
전문가 육아 교육도
엄마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.

【 인터뷰 】

신재희 서울시 동소문로

(아이가) 클 때 마다 다른 정보들이 있어가지고
정보들을 알기가 쉽지 않은데 선생님들이 정보들을
알려주셔서 좋았고...

【 VCR 】

이렇게 보건소와
아이와 엄마를 위한 종합 프로그램 덕분에

하루 평균 50명에서 많게는 100명의
엄마들이 다녀갑니다.

【 인터뷰 】

이미선 정릉아동보건지소

일반 카페라던지 공공기관을 이요할 때 눈치보면서
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가 울거나 그러기 때문에.
여기 왔을 때는 전혀 눈치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기
때문에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.

【 VCR 】

성북구는 국내 최초의
아동전용 보건지소에 대한
뜨거운 호응과 함께

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

2호 보건소 개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.

서울경기케이블TV 진기훈 기자 jinkh@dlive.kr

<저작권자 © 인사이드케이블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>

인쇄하기